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12.03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한-EU 제3차 디지털 파트너십 회의 개최 ... 디지털 기술 협력 중요성 재확인(11.28)

-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디지털 파트너십 회의에서 디지털 기술 협력 증진을 통한 양국 경제 상호이익 창출의지 재확인

※ EU 집행위 비르쿠넨 부집행위원장과 한국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 공동 주제

- 양측은 디지털 파트너십을 통해 반도체, 6G, AI, 양자 기술 등 신기술 분야의 공동 연구혁신을 지속하며 기술 경쟁력과 리더십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의 회복력을 높여 경제 안보를 강화할 계획

※ 다음 디지털 파트너십 회의는 2026년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

○ 유럽 주요 대학·연구기관 연합체, FP10 공동 수정안 제안 발표(12.1)

- 유럽 연구혁신 기관들을 대표하는 단체*들이 집행위의 FP10 제안에 대해 공동 수정안 제안을 발표

* CESAER, Coimbra Group, EUA, EU-LIFE, LERU, The Guild, Yerun 등 7개 기관이 주도했으며, 900개 이상의 대학 및 연구소를 대표

- 공동 제안 주요 내용으로 명확하고 독립적인 FP10 목적 정의, 연구자 주도성과 우수성 중심 원칙을 유지·강화, FP10-ECF 보완성(성과 기반 혁신 확산) 확보, 준회원국·제3국에 대한 개방성, 우수성 기반 참여, 예측 가능한 가입 장려(특히 영국·스위스) 등이 있음

○ EU, 회원국에 연구혁신·STEM 역량강화 투자 확대 권고(11.26)

- 집행위는 11월 25일 [‘European Semester’](#) 정책 권고를 통해 회원국들에 연구혁신 투자 확대, 특히 STEM 분야 중심 기술 역량 강화 투자 확대를 재차 권고(인재·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가 처음으로 경쟁력 강화 우선순위에 포함)
- 모든 회원국은 2026~2027년 동안 컴퓨팅 포함 STEM 기술이 필요한 전략 산업 분야의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함

○ (기타) ▲호라이즌 공동사업단(JU), 유럽경쟁력기금(ECF) 지원 연계 기대 ... 차기 예산서 파트너십 ‘대폭 축소’전망(12.02) ▲EU, 녹색성장·경쟁력·회복력 강화를 위한 신규 바이오경제 전략 발표(11.27) ▲7백만 유로 ERC Plus 그랜트, 2026년 첫 공모 개시 예정 - 알아야 할 핵심 내용(11.28)